

제가 전에 사역했던 뉴헤이븐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매일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진교실에 함께 모여서 아침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같이 탁구를 치고, 각자 일터로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전 이야기예요. 거기서 새벽기도회는 신기하게도 남자 성도님들이 많았는데,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등장하는 화제는 스포츠였습니다. 골프, 테니스, 탁구 등등... 그런데 이야기 나누다 보면 모든 운동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스윙을 할 때, 불필요한 힘을 빼는 거예요(relax, remove tension).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구요. 신체 어느 부위에 무리가 간다는 건 그 만큼 불필요한 힘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그걸 고치지 위해선 바른 모습으로 교정해 줄 수 있는 코치한테 지속적으로 교정을 받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 그 폼이 굳어지면 나중에 고치는게 불가능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 역시 결국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해서 내 힘과 방법과 계획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부분을 성경 말씀으로 교정 받고, 고쳐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불필요한 힘을 빼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순수혈통의 어느 신앙의 명문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 보다는 못한 취급 당했던, 그래서 함부로 말도 섞지 않았던,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어느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어머니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참으로 빛납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결론 부분을 마태복음 버전으로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대단히 칭찬하셔요.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때로부터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딸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어머니의 가슴앓이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딸이 어떤 딸입니까? 더러운 귀신들린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흥약하게요.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말도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구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저것도 사람이냐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 이 딸은 천하보다 귀한, 가장 소중한 딸이지요! 세상에서 아무 쓸모 없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좋은 학벌 때문에, 좋은 직장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만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았을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다 가보았을 겁니다. 별의 별 방법을 다 해보았겠죠.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선지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이라면! 딸 아이를 건강하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방 여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당시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자에게 말도 걸면 안되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첫번째 신앙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요! 그 분이라면 나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편견이었겠죠! 이방인이라는 편견, 그리고 여인이라는 편견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많은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편견이 있고, 나이가 적어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있고 없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딸을 위해서 어머니는 참기 어려운 모욕과 시련을 다 극복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대답치 않습니다.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이번엔 더 크게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버전이 조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나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프고 불쌍한 것은 딸 아이인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그 아이가 곧 자기 자신과도 같다는 거죠. 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고, 완전히 하나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에 대답이 없어요! 보다못해 오히려 제자들이 옆에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주님,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소리지르니까 좀 보내 버리시죠." 이 어머니는 이와같은 무시함도 극복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봐도 소용없어!" 라는 열등의식 그것도 극복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하시다가,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묵묵히 기다리시는 것처럼)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참았다고 해도, 이 대목에서 한숨이 푹푹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소리지르고 화를 벌컥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소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모든 모욕, 굴욕을 참았습니다. 열등의식도 내려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당시 가나안 사람

들은 정결하지 않고, 부도덕하다고 해서 개라고 별명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한 편견을 오히려 받아 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온전한 은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좋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딸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딱 2번 기록되어 있는 '네 믿음이 크다' 라는 말씀으로 칭찬하셨구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랑, 이와 같은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낳았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사랑을 경험할 때, 철부지의 삶도, '저 인간만큼은 변할리가 없어!'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5만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영국의 조지 윌러는 조용한 아침시간에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였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아침에 옷을 입은 후에 조지 윌러는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그런 경건의 훈련 후에야 그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안정되고, 용기를 얻고, 조심하게 되며, 내 마음을 견책하고, 훈계를 받곤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마음은 주님과 의 체험적인 교통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아침에 신약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보배로운 축복의 말씀을 본 후에 내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으며, 마치 그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듯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 말씀에 대해서 대중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내가 묵상했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거의 이러한 규칙적인 일을 한 결과는 불과 얼마 후에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한 감사드리고 또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나 곧 나 자신은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다시금 마음 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 때문에, 멸시 천대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것은 성도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음도 아니요, 환난이 없는 것이 성도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다. 이 환난을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그 성도에게 환난이 주어지는 것이다. 성도는 다만 이길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께 더 큰 믿음과 힘을 달라고 간구할 뿐이다." 환난으로 낙심하거나 실망에 차 있을 것이 아니라, 환난가운데도 기도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절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고도, 절실하고, 끈질기게 주님을 의지하시고 응답 받는 삶을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